



미 증시, 6월 FOMC 의사록 부담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5 일(수) 미국 증시는 미중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진한 서비스업 PMI 결과에 하락 출발,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7월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지며 투자심리 위축된 영향으로 상단 제한된 채 하락 마감. (다우 -0.38%, S&P500 -0.2%, 나스닥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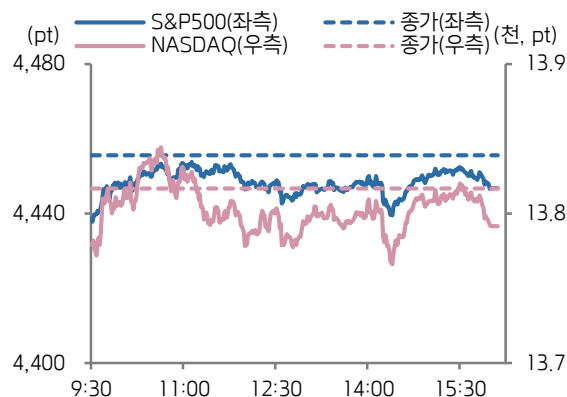
6월 FOMC 의사록에서 금리인상 기초 재확인.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는 10번 연속 금리인상의 효과 및 상당한 누적긴축이 경제 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 "경제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높은 이자율을 포함한 긴축된 신용 조건으로 인해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활동과 고용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그러나 몇몇(some) 참석자들은 6월에도 0.25bp 인상을 선호하거나 그런 제안을 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의견이 양분되었음을 시사. 또한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2% 도달할 것이라는 분명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18명의 참석자 가운데 1회 이상 인상에 대해서는 16명, 2회 이상 인상에 대해서 12명이 찬성.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날 6월의 금리 동결을 지지하면서도 "물가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할 일이 더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가능성을 시사. "경제가 여전히 고용에 대한 강한 수요를 가지고 있고, 주택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약간 놀라웠다'"며 미국 경제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비교적 잘 견뎌냈다고 평가.

미국 5월 제조업 수주는 전월대비 0.3% (예상 0.8%, 전월 0.3%), 자동차와 비행기를 제외한 제조업 수주는 -0.5% 기록하며 부진. 내구재주문은 1.8%(예상 1.7%, 전월 1.7%),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부문 자본재 주문은 0.7% 증가. 한편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3.9(예상 56.2, 전월 57.1) 기록하며 큰폭으로 부진, 지난 3일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PMI 50.5(예상 50.0, 전월 50.9)에 이어 경기둔화우려 부각. 유로존 6월 제조업 PMI 역시 43.4(예상 43.6, 전월 43.6) 기록하며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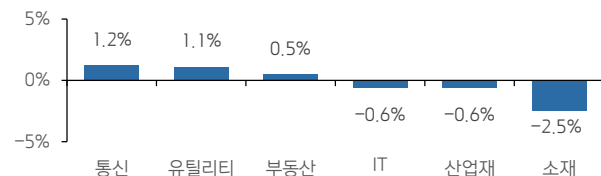
업종별로 통신(+1.2%), 유틸리티(+1.1%), 부동산(+0.5%) 강세, 소재(-2.5%), 산업재(-0.6%), IT(-0.6%) 약세. 중국 갈륨, 게르마늄 수출 규제 여파 및 챗 GPT 6월 PC·모바일 트래픽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보도에 엔비디아(-0.23%)를 비롯, 마이크론(-2.88%), 인텔(-3.3%), 온 세미컨덕터(-4.01%), 램리서치(-3.44%) 등 반도체 업종 약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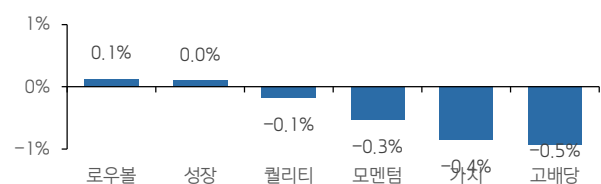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79.00	-0.55%	USD/KRW	1,298.56	-0.2%
코스피 200	339.04	-0.75%	달러 지수	103.33	+0.29%
코스닥	891.18	+0.13%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377.37	+0.75%	USD/CNH	7.26	+0.01%
S&P500	4,446.82	-0.2%	USD/JPY	144.55	-0.08%
NASDAQ	13,791.65	-0.18%	채권시장		
다우	34,288.64	-0.38%	국고채 3년	3.615	-0.2bp
VIX	14.18	+3.5%	국고채 10년	3.635	+0.5bp
러셀 2000	1,872.91	-1.26%	미국 국채 2년	4.945	+0.9bp
필라. 반도체	3,622.32	-2.2%	미국 국채 10년	3.932	+7.7bp
다우 운송	15,525.61	-0.57%	미국 국채 30년	3.929	+6.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50.71	-0.92%	WTI	71.79	+2.87%
MSCI 전세계 지수	682.46	-0.4%	브렌트유	76.65	+0.52%
MSCI DM 지수	2,960.76	-0.37%	금	1927.1	-0.12%
MSCI EM 지수	1,001.12	-0.69%	은	23.2	+1.31%
MSCI 한국 ETF	64.06	-1.13%	구리	375.35	-0.6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2.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2. 엘런 재무 장관의 방중 관련 뉴스플로우 3.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고 있는 국내 2차전지주들에 대한 수급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6 월 FOMC 의사록에서 공개된 연준 위원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분히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일단 대다수 위원들이 6 월 금리 동결을 찬성했으나, 1) 대부분 이들이 '23 년 추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2) 일부 위원들은 타이트한 고용시장, 인플레이 2% 복귀 신호 미약 등을 이유로 6 월에도 인상을 주장하는 등 연준 내부적인 분위기도 추가 긴축을 선호하는 쪽으로 쏠려있는 모습.

이 같은 의사록 공개 여파로 이전까지 3.8%대 중반에 머물러 있었던 미 10 년물 금리는 3.93%대로 상승했으며, 달러 인덱스도 102pt 대에서 103pt 대로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긴축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 다만, 이날 미국 증시가 완만한 하락세에 그쳤으며, 지난 6 월 FOMC 이후에도 (지수 상단은 제한 됐으나) 하단은 견고 했다는 점에 유추해볼 수 있듯이, 주식시장은 1 회 추가 인상 정도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향후 증시 방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7 월 FOMC 를 넘어 이후 FOMC 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지 여부가 될 것. 현재 CME Fed Watch 상 7 월 인상 확률(최종금리 상단 5.5%, 현재 5.2%)은 89%대로 7 월 FOMC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9 월 FOMC 에서 추가 금리인상 확률(최종금리 상단 5.75%)은 18%대로 동결이 더 유력한 상황.

만약 9 월 FOMC 혹은 11 월 FOMC 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시에는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혼란을 겪으면서 증시 하방 경직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코스피 2,400pt 이하까지 하단이 열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발생확률이 크지 않은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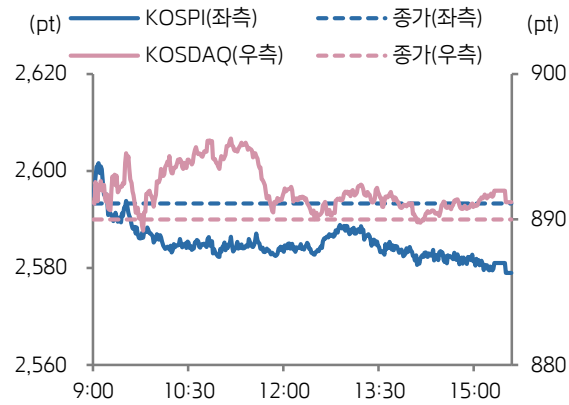
이번 의사록에서 향후 정책 결정과 관련해, 입수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는 논의가 오고 갔듯이, 그간 시장도 경험해오고 학습해왔던 것처럼 연준의 모든 결정은 지표 의존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해볼 필요. 또 연준 내부 이코노미스트들이 제기한 대로, 올해 4 분기~내년 1 분기에 미국 경제가 약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에, 시장참여자들도 지표 의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되 "7 월 FOMC 인상 이후 긴축 사이클 종료"를 기본 전제로 상정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6 월 FOMC 의사록 경계심리 속 중국 서비스 PMI 둔화 등에 따른 기관의 순매도 여파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0.1%).

금일에는 매파적인 의사록 공개 이후 달러화 및 시장 금리 상승 부담, 7 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대기 심리 속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약세(-2.2%) 등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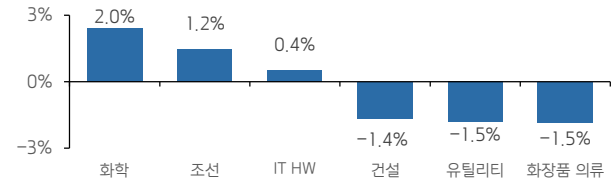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기로 결정함에 따라, 마이크론테크놀로지(-2.9%) 등 미국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점은 전일 조정을 받았던 국내 반도체주들의 투자심리를 저해할 수 있음. 다만, 삼성전자의 2 분기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전망은 유효하다는 점과 6~9 일 엘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이후 미중 양국간 갈등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 시, 금일 반도체 포함 국내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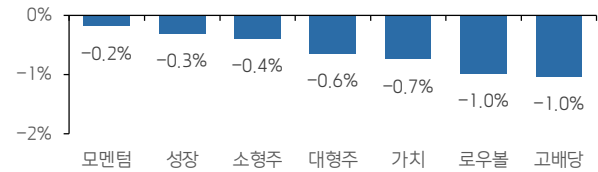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